

장보고와 완도 청해진



정 재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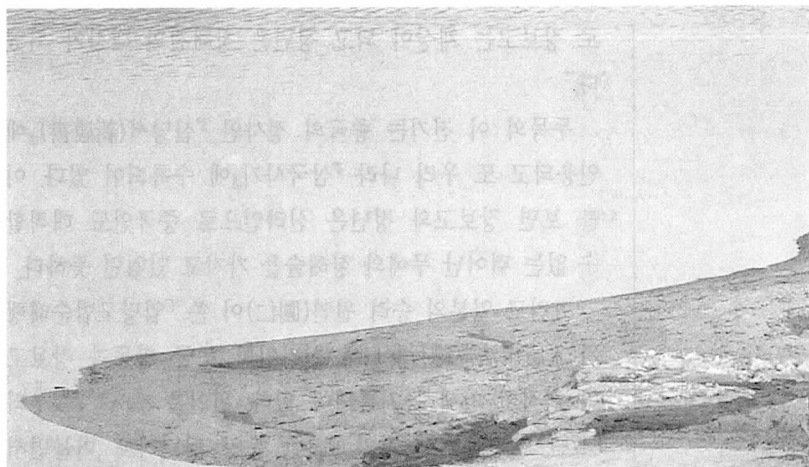
〈 문화재발굴조사사업단장
전 문화재관리국장 〉



리나라의 국력이 세계로 쪽쪽 뻗어 나가려
면 해양국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 역사상
해양국가의 실현을 보여 주었던 사람은 장
보고(張保臯)이다. 장보고가 이끄는 신라 해군은 9세기
중국과 일본을 넘나들면서 해상무역과 상권을 장악하고
해적을 소탕하는 등 무적의 함대로 중국해로와 일본해로
의 모든 제해권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그 장보고의 해상기지가 사적 제308호로 지정되어 있
는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있는 장도(將島, 면적
37,794평)이다. 장보고와 정년(鄭年)에 대한 것은 당시 당
나라 시인 두목(杜牧, 803-852년)의 문집속에 전기로 기
록되어 있다.

“신라인 장보고와 정년은 신라로부터 당의 서주(徐州)
에 와서 군중소장(軍中少壯)이 되었다. 장보고는 30세이
며 정년은 그보다 10세 연하이다. 두 사람은 싸움을 잘하
여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면 그들의 본국에서는 물론 서
주에서도 당할 사람이 없었다. 또 정년은 잠수를 잘하여
물속에서 50리를 가도 숨이 막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용



청해진 앞바다

맹과 견장함을 견주었으나 장보고는 다소 정년에 미치지 못하였다. 장보고는 나이가 위라는 이유로, 또 정년은 무예에 능하다는 이유로 서로 상대방의 아래에 있기를 꺼렸다.

뒤에 장보고가 신라로 돌아가서 국왕(흥덕왕)을 배알하고 '중국 도처에는 신라인이 잡혀와서 노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청해(淸海)에 진(鎭)을 설치한다면 해적들이 사람을 잡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아뢰자 국왕은 그에게 1만군을 주어 그의 청대로 하였다. 이후 태화(太和, 827~835년) 연간부터는 신라인을 잡

아가는 해적들이 없어졌다. 장보고가 청해진 대사로 있을 무렵 정년은 실직하여 신라로 돌아와 장보고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그때 신라 조정에는 쟁탈전이 벌어져 패사(敗死)한 김균정(金均貞)의 아들 우징(祐徵: 神武王)이 청해진에 내려와 장보고에게 몸을 의탁하자 장보고는 그를 도와 5천의 군사를 정년에게 주어 환난을 평정케 하였다. 정년은 신라 대경(大京)으로 쳐들어가서 민애왕을 죽이고 우징을 왕으로 옹립하였다. 이 우징이 바로 신라 제45대 신무왕이다. 이 전공으

로 장보고는 재상이 되고 정년은 청해진의 대사가 되었다.”

두목의 이 전기는 중국의 정사인 『신당서(新唐書)』에 인용되고 또 우리 나라 『삼국사기』에 수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장보고와 정년은 신라인으로 중국인도 대적할 수 없는 뛰어난 무예와 항해술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그리고 일본의 승려 원인(圓仁)이 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신라인의 중국 활동과 장보고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원인은 838년 7월부터 847년 초겨울까지 거의 9년반 동안 당나라에 머물면서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 이 여행기록은 중요한 역사적 문헌이 된다.

원인의 여행기록에 보면 중국 양주, 초주, 연수 등 양자강과 회수 하류 연안 대운하 변을 따라 신라인 촌락이 많고 산동성, 문등현, 청녕향, 적산촌은 신라방(新羅坊)의 중심지였다. 이중 적산은 신라와 일본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거나 중국 연해안으로 들어가는 중심 항구였다.

적산법화원은 신라인이 결집하던 중심지

820년대에 장보고가 이곳 적산에 건립한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은 연간 500석의 곡식을 수확하는 장전을 소유한 사원이었다. 법화원은 장보고 휘하의 장영과 임대사 및 황훈 등에 의하여 경영되었다. 상주하는 승려가 24명, 비구니가 2명 노파 3명이 있었다. 그리고 법당, 승방, 객사, 식당, 창고 등의 건물이 있었다.

원인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법화원에서 839년 11월 16일

부터 다음해 1월 15일까지 법화경 강회가 열렸다. 그때 신라풍속과 신라말로 법회가 진행되고 마지막 단계에는 200~250명의 사람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는 적산법화원이 신라인이 결집하는 중심지이며 정신적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장보고는 중국에 있는 신라인 사회를 법화원을 통하여 통괄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원인의 기록을 보면, 장보고는 824년 일본 북큐슈(北九州) 박다진(博多津)에도 다녀왔고 북큐슈 태재부(太宰府)의 태수와도 친분 관계가 있었다. 당시 일본은 신라인의 도움과 신라배를 이용해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었다. 이를 보면 당시 신라인에게는 뛰어난 항해술과 조선기술이 있었던 것 같다.

중국과 일본의 해상교통로에 완도 청해진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인가? 이는 당시 향로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신라 남해 연안을 통과하지 않고는 중국에 갈 수 없었다. 당시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지가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로 항해하지 않았다.

일본배는 북큐슈를 떠나 이끼섬을 지나 대마도에 이르고 대마도에서 부산이나 거제 남쪽 섬이 보이도록 서해 연안을 타고 북으로 올라가서 중국 연안으로 항해했던 것이다. 당시는 육지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배가 가지 않았으므로 필리핀 군도는 일본보다 중국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중국문화가 유입되지 못했다.

중국과 일본의 교역선은 14세기까지도 한국 연안을 통하여 항해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1976년부터 9년간 신안군 지도면 앞바다에 침몰된 교역선의 신안 해저유물발굴인양작업이 실시되었다. 이 교역선은 약 450여 톤에 이르는 거대한 목선으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도자기, 약재, 향료, 은괴 등을 가득 싣고 가던 배였다.

가장 많은 화물은 도자기였는데 월주요, 용천요, 경덕진요 등의 청자와 백자이고 후추 등 향료와 24통에 이르는 중국 동전과 은괴 등이 실려 있었다. 물표인 목관이 발견되었는데 '지치 3년(至治三年) 6월(六月) 1일(一日)'이라 써어 있었다. 지치 3년

은 1323년이 되므로 이 배는 1323년이거나 1324년 어느날에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해진의 유적지인 장군섬은 바닷물이 빠지면 완도 본섬과 이어지고 물이 들어오면 170m 거리로 섬이 된다. 1991년부터 문화재연구소 발굴단이 청해진 장도를 발굴조사한 결과 자갈과 진흙으로 다져 쌓은 성채와 건물터가 드러났고 통일신라의 기와쪽, 토기, 화살촉 등과 해무리굽이 있는 청자편들이 발견되었다. 이 청자편은 고려청자가 아니라 신라청자임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밝혀졌다. 청해진 주위에서 중국 자기 기술을 습득한 신라청자 생산기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군섬 주위 갯벌 속에는 목책을 세웠던 기둥 크기의 목책 밀둥이 지금도 줄을 지어 박혀 있다.

장보고는 자신의 딸을 신라 문성왕의 왕비로 천거하였는데 중앙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자 846년 봄 청해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장보고는 염장이란 자객에게 암살당하고 851년에 청해진은 폐진되었다. 당시 청해진에 살던 주민은 모두 벽골군으로 옮겨져 완도는 무인도가 되었던 것이다.

청해진에서 서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노라면 파도소리 속에 우람한 북소리가 들리고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청해진 장보고 함대의 기폭이 나부긴다. 해양국가를 건설했던 장군의 포부를 오늘 다시 만나고 싶다. 그 강인한 기상 속에 소리치며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 인다.▲▲